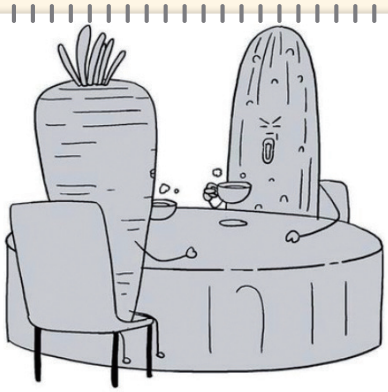
4 마음의 울림

◆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해 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말을 빈칸에 써 봅시다.

키크니(Keykney)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당!

채소 편식하는
사람을 보면서 채소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야, 나도 걔 별로야.

목욕하고 나오면
집안 곳곳을 전력 질주하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그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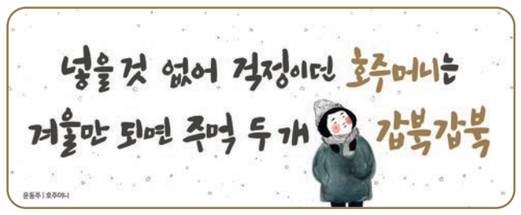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 바쁘게 지나다가도 한번 눈길을 주면 누구의 발걸음이든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광화문글판'입니다. 길지 않은 한두 줄의 글귀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때로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때로는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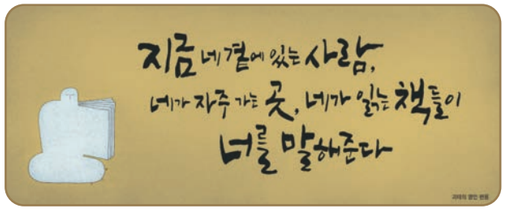
1991년 한 회사 창립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광화문글판'은 30여 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든든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자, 헤르만 헤세, 로버트 프로스트, 윤동주, 정현종 등 40명이 넘는 동서고금의 현인과 시인의 작품이 '광화문글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화문글판'은 현재 광화문 광장 외에도 서울 강남, 충남 천안,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글귀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광화문글판' 중에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글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2019년 겨울에 걸렸던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갑북갑북'** (윤동주, 「호주머니」)은 추운 겨울,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걱정이 앞서지만 두 주먹을 희망 삼아 씩씩하게 살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은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괴테)는 2010년 가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사소한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므로 작은 일상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팽팽한 마음, 튀어 오르는 몸, 그 샘솟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김광규, 「오래된 물음」)는 2018년 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듯 새봄을 맞아 더욱 희망찬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남나요?

이처럼 좋은 글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아 힘을 주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줍니다.

1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광화문글판'에 적힌 글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지니게 된다고 했나요?

2 무엇이 '너'를 말해 준다고 했나요?

3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2 말의 표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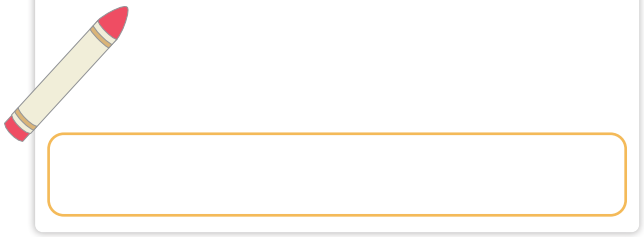
표현	말이 주는 느낌
갑북갑북	
팽팽한	
샘솟는	

3 낱말을 이용하여 끝말잇기를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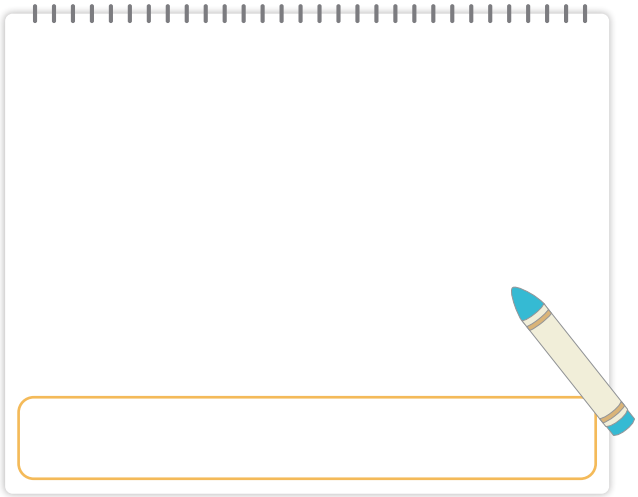
4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판을 만들어 봅시다.

5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나의 모습을
그려 주세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책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배움 다지기

-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했나요?